

## 행정 전산망 구축이 앞으로의 대업

시스템 공학센터 성기수 초대 소장

컴퓨터 저널 1986.3. 『권두 대담』

### 키워낸 인재만도 1천여명이 넘어

시스템공학센터하면 누구든지 성기수(成琦秀)(52) 박사를 언급하고 지나간다. 67년 시스템 공학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이곳을 지켜오고 키워왔던 성 박사에게 이제 이곳의 상징적 인물이며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그를 가르켜 국내 전산계의 代父라고까지 표현한다.

「63년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3년을 컴퓨터 분야에 몸 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키워낸 인재들만 해도 1천여명이 넘는다. 이들의 대부분은 국내 혹은 해외의 첨단기술분야에서 제각기 최고 브레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내 최고의 브레인을 키워낸 연륜과 성 박사가 지금까지 컴퓨터분야에서 이룩해 놓은 연구업적들이 오늘날 그로 하여금 전산계의 대부라는 위치에 서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 민간기업과 이익관계가 상반될 때 항상 양보

성 박사가 이렇듯 전산업계의 막중한 위치에 있지만 가끔은 마찰과 충돌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키워 배출한 인물과 서로 부딪칠 때도 있고 때로는 컴퓨터업계에서 쏘는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스템공학센터의 초창기만 해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능력을 갖춘 곳이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민간기업이 창설되면서 시스템 공학센터는 『민간기업의 영역 침해』라는 소리에 접해야 했다는 부언이다. 하지만 성 박사는 시스템공학센터가 사실상 한번도 민간기업의 일을 빼앗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과 시스템공학센터의 이익관계가 서로 상반될 때는 시스템공학센터가 전적으로 양보하고 충돌을 피한다는 것이 이곳의 원칙입니다』 단 민간기업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분야에 한해 이곳이 맡는다고 성 소장은 첨언했다. 실명제 전산화와 올림픽 전산화 역시 어느 민간기업도 이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공학센터가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희가 민간기업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술부족으로 인한 사업체의 침체를 저희에게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렇게 항변하면서 앞으로도 국내에서 열세에 있는 기술분야는 그 기술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한국전산원으로 흡수될 예정

『몇년전까지만 해도 시스템공학센터가 국가 행정 전산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통신이 이를 맡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전산망 분야에서도 교육연구망 분야만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 박사는 아직까지 행정전산망의 윤곽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국가가 필연적으로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그 실현시기는 짧을수록 좋다는 것.

시스템공학센터도 지금까지 이를 위해 준비해 왔다고 말하면서 작년에 발표한 동 사무소 전산화 소프트웨어가 그 성과 중의 하나라고 예를 들었다. 앞으로의 시스템공학센터의 방향에 대해 현재 체신부가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한국 전산원』으로 이곳이 흡수될 것임을 밝혔다. 현재 KAIST의 산하단체로 있는 시스템공학센터가 체신부 산하의 『한국전산원』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 전산원』이 설립되면 지금까지 한국 데이터 통신이 전담하던 행정전산망 업무는 모두 이곳으로 이괄되고 데이터 통신은 공중회선 서비스망의 설치만을 맡게 된다고 했다.

### 국내 컴퓨터업계는 수출로 활로를 찾아야

『제가 연구기관에만 있다 보니 업계를 보는 눈이 별로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 컴퓨터업계의 나갈 방향에 대해 감히 어떻다고 언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에 대해 긍정론을 폈다. 작년부터 조짐을 보인 16비트 컴퓨터시장의

수요 확산을 계기로 컴퓨터업계가 꾸준히 발전하리라는 것이 그의 예측이다. 소프트웨어 역시 모든 업계가 꾸준히 노력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피력했다.

『올해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특히 반도체나 부품, 소자 등의 수출이 호조를 띠 것으로 봅니다』 작년만 해도 컴퓨터업체는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에서 끌어들이는 판매고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컴퓨터업계는 수출의 향로를 뚫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시장에서 많은 컴퓨터업체들이 부딪쳐 봤자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좀더 넓은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 최선을 다해 새로운 정보화사회에 대처

성 박사는 지금까지의 꾸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 및 공공 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양상, 교육연구 전산망 확충 등 이곳의 기본 사업에 더욱 충력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에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경기관리 전산시스템을 더욱 완벽히 다지고 이를 확산시켜 거국적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공학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기술에 관한 탐색연구, 개척연구, 시범연구를 수행하고 산업으로 기술을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국내 정보산업의 장기전략을 위한 각 부처의 관심과 노력으로 다소간의 조정이 있어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성 박사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맞추어 움직임으로써 최선을 다해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뜻을 내 비쳤다.

### 중·고교 졸업장 없이 하버드 최단기 공학박사

성 박사는 '34년 경북 성주생이다. 6.25 동란으로 아버지와 형제를 잃고 학업을 중단한 그는 이 때문에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 6.25 당시 공민중학교의 교사를 지원했다가 국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일도 그의 어렵고 암울했던 어린시절을 짐작케 했다. 성 박사는 검정고시로 서울대 항공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공사의 교관으로 있었다. 그 당시 성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로켓트 발사에 탄도계산담당으로 참가해 그가 단독으로 산출해낸 공식이

미국 항공우주과학지에 실리게 된다. 이 공식으로 하버드 대학, 대학원의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다. 그는 2년만에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하버드 300년의 기록을 깨고 최단기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귀국 후 그는 우주분야보다는 전산 쪽을 선택해 인생 전환점을 만들었다.

『저는 참으로 운이 좋은 편입니다. 노력해도 안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저는 노력한 대로 일이 풀렸거든요』

젊은 시절 고생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 박사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自足하는 편.

『현재 제 아래의 직원들이 묵묵히 맡은 일을 해주고 있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기에 그저 믿음직스러울 뿐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고수해온 머리 스타일 역시 그의 이러한 성격을 뒷바침해 준다. 이발소에 가지 않고 성 박사 스스로 짜르거나 부인이 찢라 주는 이 머리 스타일을 그는 금주, 금연의 생활 패턴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 엄정림 여사(47)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는 성 박사는 특별히 잘하는 특기나 신경을 쏟는 취미는 없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지지 않은 장기가 하나 있다. 수학계산문제 풀기가 그것이다.